

2022년 3월 12일 “예수님의 비유(32) 때를 알리는 무화과 나무”(마 24:32-35)

오늘 본문과 24:1~31은 재림에 관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1] 예루살렘 성전 심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40년 넘게 증축되고 있었습니다(A.D.64 완공).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며,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 날의 징조를 묻습니다(3절). 이에 예수님은 크게 두 때를 말씀하십니다.

v.34 까지: 이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 → 사도들의 세대

v.36 이후: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 아버지만 아시는 재림의 시기

오늘 보는 무화과나무 비유는 성전심판과 관련된 말씀(4~31절)입니다.

(1) 4~14절: 거짓 선지자 출현, 전쟁 소문, 기근, 지진, 제자들의 환란

→ ‘온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 ‘그 때’에 끝이 온다.

‘온세상’은 1세기 지정학적 관점에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골 1:6, 롬 16:26). ‘끝’(14절) = 성전 파괴의 시점(A.D.70)

(2) 15~22절.

v.15 ‘가증스러운 것들이 거룩한 곳(성전)에 서거든

역사적으로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쳐들어와 치욕스러운 일을 감행했는데(B.C.2세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군이 유대인 100만명을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고 아이 밴 여자들은 더욱 조심하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3) 23~28절. 거짓 메시아들을 경고.

v.28 주검 = 거짓 메시아들의 활동과 표적들; 독수리 = 예수님 오심

v.29 구약 선지자들이 심판을 예언할 때 사용하는 우주적 붕괴 언어.

v.30 ‘그 때에는 ... 인자가 ...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말합니다.

v.31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으심. 교회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성전 파괴는 우연이 아닌 심판주 예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2] 성전 심판의 의미

(1) 성전 건물 시대의 마감.

예수님의 새 성전 시대의 시작(요 2:21).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놓치고 종교적 형식과 명분에 치우쳤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심판은 불가피했습니다.

(2)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초로 제사장 나라라는 위대한 직분을 받았지만 당시 제사장은 정치/사회적으로 오용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본분을 떠나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3) 예루살렘 멸망 심판은 재림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내다보게 하는 창문 역할을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성취를 방해하는 세력을 제거합니다.

예루살렘 파멸은 이스라엘 민족을 일정기간 버리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 되신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본분은 회복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며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심판 사건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성품과 방식과 태도를 매일 한걸음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에덴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하는 길입니다.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알아보듯이 이스라엘 심판의 징조들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왜 심판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2. 이스라엘 심판과 재림 심판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유사성이 있습니까?